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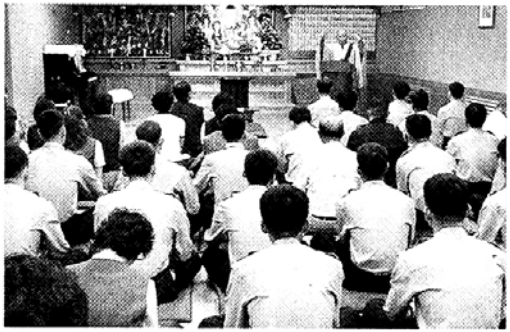
유성구청 불자회 첫 자체법회

대전 유성구청 불자회(회장 김종묵)는 14일 대전 구암사에서 5월 창립 이후 첫 자체법회를 가졌다.



경북회 지형스님 초청법회

경찰정불교회(회장 박재진)는 12일 경찰청 법당에서 선사화(禪畫)로 유명한 지형스님(서울 소림정사 원장) 초청법회를 가졌다.



광주불교산악회 속리산 산행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오길수)는 8일 속리산과 법주사로 산행을 다녀왔다. 회원 및 가족 60여명이 동참한 이날 산행은 보현재와 세심정, 문장대를 거쳐 법주사 금동대불과 팔상전 참배로 진행됐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2돌

직장직능·거사불교 주도



공무원불자연합회는 2년만에 소속 단체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직장·거사불교를 주도하는 단위로 성장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이하 공불련)가 창립 2년만에 지회와 회원이 4배 이상 증가, 직장불교를 물론 거사불교 활동을 이끌어 가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있다.

28~29일 통도사에서 기념법회...활성화 모색

180여 단체 가입...2년새 4배나 증가 연합활동 강화·교육체계 마련등 과제

직장불교를 주도하고 있다. 법회와 성지순례, 수련회 등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경전강독, 기도법회, 봉사활동, 이웃돕기 등으로 활동이 다양해졌다.

과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등 별도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자들을 공불련으로 통합하는 문제와 미창립 기관의 불자회 결성 등도 과제로 남아 있다.

공불련은 28~29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리는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계기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등의 활성화 모색에 나선다.

안홍부 사무국장(감사원)은 "창립 이후 2년동안 지역불자회 창립 등 외적인 성장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회원개인의 수행, 사회적인 실천에 나서야 할 때"라며 "단체별 교리 모임을 지역별 교리강좌로 확대하고 중국동포들에게 나서는 등 회원들의 수행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많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기초교리·찬불가 배우기 주력”

세무사 불자회 이선희 신임회장



“현재는 법회가 큰스님을 초청해 듣는 법문에 의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탈피하여 기초교리 강좌와 찬불가 배우기 시

봉은사에서 열리고 있는 정기법회 장소를 조계사로 이전하는 문제도 고려중이다. 이 회장은 “위차나 대표성을 보더라도 한국불교 1번지로 불리는 조계사가 적합하다”며 “회원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재 공석상태인 지도법사를 모실 예정이다. 안정적인 법회 진행과 체계적인 회원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이 회장의 생각이다. 불자들의 수행활동을 책임지고 지도할 법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세무사모임 결성 추진

간 등을 가져 회원들이 기초부터 착실히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2일 서울 봉은사 범용루에서 열린 한국세무사불자회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선희 세무사(66) 사장은 “회장 등 임원진의 독선적인 운영이 회합을 깨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면서, 회원 중심의 불자회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역에만 구성되어 있는 세무사불자회를 전국단위로 확대, 지역의 세무사불자회 구성을 추진한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5,100여명의 세무사 중에는 불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은 정구정 전 회장의 원력으로 회원이 60여명으로 확대되기는 했으나, 96년 창립 당시 120여명에 달했던 인원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 임원진이 구성 되는대로 회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회원이 아닌 세무사불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 회장은 “봉사활동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회향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회원들의 참여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선희 신임회장은 동산불교대학교와 조계사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조계종 포교사, 조계종 중앙신도회 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모임에선

소비자보호원 범우회 성지순례

한국소비자보호원 범우회(회장 신동규)는 10월 5~6일 대구 동화사와 팔공산 갓바위를 순례한다. 동화사 새벽예불과 갓바위에서 108경전을 갖는 등 불교의식을 체험한다.

대전교사불자회 동학사서 법회

대전교사불자회(회장 여성규)는 28일 공주 동학사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가을 성지순례 계획을 논의한다. 파라미터정소년협회 대전지부 주최로 10월 13일 열리는 익산 미륵사지 답사 참여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은다.

KBS불교연구 육조단경 강독법회

KBS 불교연구회(회장 정종철)는 28일 분관 제1회의실에서 육조단경 강독법회를 갖는다. 강사로는 조인오 법사가 나선다. 불교연구회는 격월제로 경전강독과 저명한 스님 초청법회를 열고 있다.

전남 13시군불자회 결성 추진

도청불자회 1돌, 지역사암련과 협력강화

전남도청 불자회(회장 박재순)는 10월 2일 도청 회의실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갖고 관내 시·군 불자회 결성에 나선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순천 광양 해남 장흥 강진 무안 화순 등 7개 시·군청에 불자회가 결성돼 활동하고 있으며, 목포 영광 담양 등 3개 지역은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10월중 6차례에 걸쳐 회원들의 불교소양교육을 실시, 회원들의 자질을 높일 예정이다.

신입회원 기초교육 회향

한전 반야회, 26일 봉은사

한전반사 반야회(회장 이인규)는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8월 22일부터 5차례에 걸쳐 실시해 온 “기초교육”을 회향한다. 26일 열리는 회향식은 봉은사에서 예불 집전 실습으로 진행된다.

이런 교육은 불제예절과 사찰 구조, 기본 교리, 불교의식 등 불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상식과 예절 중심으로 실시돼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가한 이명희 씨(송변전처 보호계정팀)는 “첫 법회에 참석했을때 아무 것도 몰라 참사가기가 두려웠지만, 이제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법회에 참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최봉수 교수의 범본 금강경 특강. 한국불교의 소의 경전으로 불교 대중들이 널리 애독해 왔던 금강경! 지금 우리 불교는 그 금강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대원불교대학 홈페이지 www.idaewon.or.kr로 오세요. 최고의 불교학자들의 명강의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